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및 비전

상부 감독기관의 감찰도 기관내부의 감사도 있으나 마나

인간도 약육강식하는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생존
과 탐욕심 때문에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며 수십만년
살아왔다. 이러한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는 이기심(제7집착
식)이 뿌리 박혀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 사회의
정의 · 평화 · 번영을 실현코자 하여도 자율적 규제(수양과 양심)
만으로는, 이익 · 권력의 필연적 타락 · 부패 (Lord Acton)를
예방하기 지남하므로, 반드시 법과 원칙 · 감찰이라는 타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시민들이 국법을 존중하며 사법
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주인의식과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법교육과 공정성감시운동에 나서고 있다

언론과 민주시민(NGO)들의 공정성
감시(모니터링)가 절실하다

2010년도 수상자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 수상 소감문

■ 국정감사 모범의원 수상소감

정의화 국회의장 (국방위)
홍재형 국회의장 (정무위)
박상천 국회의원 (국방위)

■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소감

허태열 정무위원장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장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01. 국회운영위원회

김성태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박기춘 의원 민주당 경기 재선
정옥임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02.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 미래연 비례 초선
이주영 의원 한나라 마산 재선

03.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박선숙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이성남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이성현 의원 한나라 서울 재선
이진복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04.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오제세 의원 민주당 충북 재선

0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김동철 의원 민주당 광주 재선
김효재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유기준 의원 한나라 부산 재선

06.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김학송 의원 한나라 경남 3선

07.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유정현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이명수 의원 선진당 충남 초선
정수성 의원 무소속 경북 초선

0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 민노당 경남 재선
권영진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박보환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0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이철우 의원 한나라 경북 초선
전혜숙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한선교 의원 한나라 경기 재선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 민주당 전남 3선
김학용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황영철 의원 한나라 강원 초선

11.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 한나라 경남 재선
김진표 의원 민주당 경기 재선
박민식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이종혁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정태근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최연희 의원 무소속 강원 4선

12.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손숙미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윤석용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전현희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정하균 의원 미래연 비례 초선

13.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 한나라 경남 초선
홍영표 의원 민주당 인천 초선

14.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한나라 울산 재선
김희철 의원 민주당 서울 초선
백재현 의원 민주당 경기 초선
안홍준 의원 한나라 경남 재선
전여옥 의원 한나라 서울 재선
정희수 의원 한나라 경북 재선

15. 여성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10국감모범의원상

국방위원회 정의화 국회 부의장



진정한 리더십은 훈계보다는 솔선수범

1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작년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감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중진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또 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는 국회부의장 신분으로서 처음 임하는 국감이라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는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러한 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시와 훈계보다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타인의 귀감이 되지 못하는 이가 어찌 리더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제게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수여하는 주된 이유도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격려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땀 흘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해주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 모니터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 부의장 鄭 義 和

'10국감모범의원상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 부의장



국정감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님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끝났습니다.
성실한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0년도 국감 모범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그 뜻 소중히 따르겠습니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의 주요 4대 권한 중 하나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사용의 적정성, 행정행위의 타당성 등을 묻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 지 등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국정감사가 최근 많이 위축됐습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들의 불출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국회 또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감시하고 성실한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큰 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 부의장 洪 在 馨

'10국감모범의원상

국방위원회 박상천 의원



군기강확립으로 국방분야에서 일대쇄신을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NGO모니터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국방위에 들어와 천안함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를 분석해보고 그 원인에는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완벽주의의 실종’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기강해이’는 느슨한 대비태세와 비리를 유발하고 ‘완벽주의의 실종’은 작전의 치밀함과 창의력, 군사장비의 완벽성을 해친다. 군의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 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문제가 되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저하, 치아손상, 어깨탈루 등은 현역병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는 활용이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완전한 병역면제처분을 해온 점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시정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발효로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의무가 생긴 후 무려 57년이 지났는데 우리정부는 아직도 500여명의 국군포로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가를 주고라도 송환받도록 과거 서독식 방법(Freikauf - “자유를 산다”)을 내세워 협상토록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쌀을 주고 데려올 경우에는 쌀 값 하락을 막는 반사적 효과도 있습니다.

국방분야에는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장애 요인과 막대한 국방예산 문제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강해이’와 ‘완벽주의실종’과 같은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국방분야의 일대쇄신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박 상 천

'10우수위원장상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



빈틈없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준 정무위 모든 분들께 감사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강서(乙)출신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與野가 첨예하게 대립할만한 사안이 참으로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불법차명계좌 사건 등 자칫하면 국정감사가 與野간 政爭으로 인해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전락하여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중언채택 등 쟁점 현안과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부터 與野합의가 없으면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與野 정무위원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고, 이번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독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중심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한나라당의 이사철 간사님과 민주당의 우제창 간사님을 비롯한 스물한분의 정무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빈틈없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주신 구기성 수석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행정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본 의원을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 뜻은 '민생국회'·'정책국회'로 거듭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해 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동안 내내 고생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許 泰 烈

'10우수위원장상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조입니다.

국민의 눈을 대변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11년의 정치활동 중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국감우수위원장상’까지 9회에 걸쳐서 상을 수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전국 규모의 국감 평가단으로서 지난 12년간 국감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국감우수상임위원회 및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18개 상임위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잘 했다고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왕성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며 국감 우수위원장상은 그 성과를 제가 대신 수상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모범적으로 해냈지만, 현재 예산안 상정 및 법안 심사 등의 회의 일정이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중대한 사안인 조세와 경제 정책을 다루는 곳으로서 2011년도 예산안, 감세정책 및 재정건전성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서민을 위한 정책과 조세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으로서 관련 현안들과 법안들이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2010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하고 ‘국감우수위원장상’을 수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라는 뜻으로 알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晟 祚

'10우수위원장상

농림수산물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국정감사는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지난 1994년 2년 여간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고 16년 만에 국회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오로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및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는 과분한 영광을 안게 되어 이보다 더 한 영예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를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락을 떠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쟁없는 정책국감으로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최인기 개인의 영예이기 전에 최고 모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기인한 만큼 우리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열아홉분 위원 모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겉핥기식 맹탕국감’이었다는 날선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는 ‘배추과동’으로 촉발된 농산물 대란이 민심의 동요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접하면서 단순한 유통문제를 넘어 농업이 국민생존권과 국가 존립에 필요한 근간산업으로서 보호·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모든 국민과 정부에 환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국정감사를 통해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FTA·개방화·선진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쟁과 효율, 시장 기능만을 중시하는 농정패러다임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농업·농촌·농민의 권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농림수산물위원회 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 결여를 지적하고 농정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야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안 중심의 정책질의와 오랜 시간 동안 농어촌 현장과 농정 연구를 통해 수십권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성실한 국감을 수행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결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비유합니다만, 수감기관인 정부에게는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상시국감이라는 기조아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과 법 제·개정을 통한 정책의 실현으로 국민을 위한 국정실현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 2010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와 우수상임위원장 상 동시 수여는 국민들께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보호·육성 및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및 공급을 책임짐으로써 국민생존권과 국가의 자주권을 성실히 지키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엄정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 기능회복과 국정운영의 충실을 기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를 드리며, 국정감사에 모범적으로 임해주신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崔 仁 基

'10우수위원장상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한 점 부끄럼 없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안녕하십니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에 재입성한지 8개월 만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후, 묵직한 짐을 어깨에 짊어진 듯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3개 정부기관과 6개 공기업, 65개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거대 상임위입니다.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서, 수출과 무역, 에너지와 자원 등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룹니다. 정책 내용 역시 미래에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육성하는 ‘미래준비상임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끊임 없는 토론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후, 상임위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모범상임위로서 정략적 공방보다는 정책적 토론을 하는 전통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주어진 현안뿐 아니라 관행으로 굳은 캐كة 묶은 문제점, 잠재력 있는 산업 발굴 등 좀더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사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당한 관행에 대해 여론을 상기하고, 담당 기관과 대기업인 원청업체를 불러 상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해법 역시 현장에서 나온다”는 평소 소신대로, 국감 현장에서 경영자, 기업인, 노동자들을 만나 공기업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국정감사, 국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뽑힌 이유는 무엇보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3분의 위원님들은 착실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성숙한 토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식경제위원회는 모범 상임위라는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榮 煥

'10국감우수의원

국회운영위원회 김성태 의원



이 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습니다

2010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은 올 한해 동안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을 대신해 20여일간 국정감사를 치열하게 감시해온 12년 전통의 NGO 모니터단도 연말을 맞아 소중한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국민들을 대신해 주시는 상이 여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축하받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염려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예년에도 그랬듯 올해도 이 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습니다. 더 열심히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습니다.

현행 국정감사제도도 문제입니다. 길어봐야 20분이 되지 않는 질의시간과 3주일이란 기한의 한계가 있는 국정감사는, 여전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흘러가기 일쏘합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들은 으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사후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정감사 20일 동안 의원회관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 천 건이 넘는 보도 자료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지금의 국감은 국민들께 유감일 수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이제는 의회 내에서 국정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현안들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제 2010년 국정감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민 실생활을 파고드는 정책질의와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머지않아 국민께 다가가고 행복하게 하는 따뜻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단 한분의 국민이라도 불편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년 365일 국정감사를 치르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聖 泰

'10국감우수의원

국회운영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귀한 상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렇듯, 저 역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상들 가운데, NGO모니터단의 상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격려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다 잡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분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좀 더 큰 틀의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국회의원으로써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생하신 평가단 여러 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裕 貞

'10국감우수의원

국회운영 /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



피감기관을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한 달여간 수고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대 국회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밑거름을 마련해주신 270여개 NGO단체의 진심어린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이 국정감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엄정한 국정감사 모니터·평가 결과로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돌이켜 보면, 예년과 달리 올해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국정감사 상황실장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원내회의·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도맡아 진행하면서도 담당 상임위 국정감사를 소홀하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오로지 국정감사 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소관기관에 대한 의욕적인 감사에 임했으며, 당직을 맡아 국정감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불철주야로 보좌진들과 머리를 맞대며 준비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다가가는, 국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국정감사에 반영하여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눈을 대신하여 구석구석 충실하게 지켜봐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 덕분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짧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소관기관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의 우수의원상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채찍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매진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朴 起 春**

'10국감우수의원

국회운영 /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 라는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0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데에 감사드리며, 독려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도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를 할 것’ 임을 분명히 했고,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아닌 민생 속에서 국정감사를 치루겠다는 다짐과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입주민을 상대로 자행해왔던 대형건설사의 불공정약관 강요행위’,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필요 주장’, 그리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잇따른 인상을 강행한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준비할 때는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서민의 실정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수국회의원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여당이기에 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지적할 것은 야당보다 더욱 호되게 지적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한 축인 책임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는 부담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 외교와 금융을 확실히 섭렵하겠다는 열정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마치며, 금융당국은 그 존재이유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어떤 가치와 책임의식을 가지느냐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향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하는 국회의 임무도 막중한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鄭 玉 任

'10국감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과 ‘우수국회의원상’ 을 수상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기에 더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모니터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심사와 시상식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친박연대와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원내대표, 대표대행의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 국회에서도 법사위·운영위·예결위·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외되고 가려져 있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잘못된 문제들 속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요즘 국회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대립이 아닌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문화를 창출하지 못한 채 정치투쟁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비교섭단체인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로서 구태정치를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생각으로 동분서주하였으나 거대 여·야당인 교섭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운영 협의에 참여하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두 번째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시는 의원님들과 국감NGO모니터단에 참여하신 모든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盧 喆 來

'10국감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늘진 곳을 더욱 살피는 그런 따스한 정과 손길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국회는 올해도 51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마쳤습니다.

지금처럼 20일 동안 모든 상임위가 516개 정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복·부실 감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노력 부족도 있지만, 매년 부실 감사의 중요한 근거로 지적돼 온 정부의 부실 자료 제출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회가 과거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정치” 구태에서 상당히 벗어나 정책검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은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큼니다. 밤낮으로 고생한 여러분들을 보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러시아 식물육종학자가 떠오릅니다. 곳곳에서 수천, 수만의 씨앗을 수집해 종자은행에 보관한 바빌로프의 노력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망이라는 씨앗”을 국회에 심고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탄만 받던 국회도 1년에 하루, 오늘날만큼 직접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참으로 뿌듯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그 동안 고생해 준 모니터단 여러분과 우리 보좌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늘진 곳을 더욱 살피는 그런 따스한 정과 손길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柱 榮**

'10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



우수의원 선정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격려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출신 국회의원 권택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2년 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1개월간의 종합·정성평가 작업을 통해 언론의 조명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수의원을 발굴·격려하여 더욱 충실한 국감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2년 연속 NGO 모니터단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그 어떤 상보다 의미있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사회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친서민 정책’들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존자료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분석하였습니다. NGO 모니터단에서도 이런 연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수상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임위 활동과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서민정책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데 감사를 드리며, 오랜 기간 평가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신 1,000여명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권택기

'10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



정부의 시정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의 관련 정부부처가 법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해야 할 일 안 한 것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것은 없는지를 따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된 정무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부처가 있고, 산하 기관도 수십 곳이 있습니다. 3주간 그 모두를 따지고 짚어보는 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일부터 짚어보자고 하다 보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질의시간은 하루 12시간 감사를 해도 20여분에 불과합니다. 참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진실을 추궁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질의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과 서로 응원하고 받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 국민권익위 청렴업무 담당자의 비위 문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제 그리고 국민의 70%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공정’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약 이행 평가 문제, 영화상영관과 배급사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충성경쟁’과 ‘줄 세우기’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졌지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웅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의 실효성 문제,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문제, 삼성생명의 ‘통합보장보험’의 문제,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또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시정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조사가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부처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안이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내내 국정감사 하듯 해야지 했던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박 선 숙

'10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



국민의 위임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파수꾼으로서 최소한 밥값은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남입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희 의원들과 함께 국감현장을 지키며, 고생하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 하나라도 놓칠까 귀를 세우고 경청하며, 꼼꼼히 체크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노고가 있기에, 우리 의원들 역시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의 노력이 쌓여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싶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거침없는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데도,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국민의 위임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파수꾼으로서 최소한 밥값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成 男**

'10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대문 갑 지역 이성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때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20여 일 동안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냉철한 평가에 임해주신 1천여 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15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방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고 공평하게 검토해주신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아쉬움과 다짐이 공존하게 됩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한 관점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각계 전문가들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국정감사를 더욱 잘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날 때마다 느끼는 또 다른 소회는 바로 상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일이라는 짧은 시간도 그렇지만, 하루에 서로 상이한 업무성격의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몇 개 기관에게만 질의와 관심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몰아서 진행되는 방식은 국정감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시 국정감사제도마련이 요구됩니다.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밀도있는 감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기관의 업무를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오래되고 낡은 제도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짐했던 ‘국민눈높이 국감’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2010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性 憲**

'10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



서민과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 국회에 입성한 뒤 3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더욱 더 감회가 새로운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채찍과 격려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때로는 진심어린 조언과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감기간 동안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알이 살피느라 수고하신 1000여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치러진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실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총리실 국정감사에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차적조회 등을 통해 민간사찰이 이뤄졌음을 밝혀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정권의 권력사유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의 대출자료를 받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법정최고이자율 채경 간 사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대부피해를 줄이기 위한 감독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법률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정감사에선 홈쇼핑 판매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하고, 배추값 파동과 관련해 공정위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고 배추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감기간 내내 서민과 중산층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의 실정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단이 높게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시민과 동래구민,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번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珍 福**

'10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난 미국 및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력을 모아 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리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딛고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국정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민심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의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속에서도 10여분의 경제전문가들과 토론을 시작했고, 그 분들의 소중한 수고 덕분에 한국경제의 2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재정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에 대한 아홉개의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경제따라 하지 않기’라는 보고서를 내어 현재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의 2대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선으로서 세 번째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고 격려해주셔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成 植

'10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



서민이 잘사는 사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북 홍덕 갑 국회의원 오제세 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국감NGO모니터단’ 이 뽑은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가면 결국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야기할 뿐입니다.

공정사회란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고, 경제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정책 또한 그렇게 추진돼야 합니다. 서민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심사숙고 끝에 ‘부자감세 철회’ 와 ‘탈세방지’ 를 2010년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왜 부자감세이고 철회해야 하는지 집중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무능을 질타하고, 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GDP의 약 30%, 300조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국세청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대혁신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감독위원회설치’, ‘50대 재벌과 100억 원 이상 자산가의 납세정보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탈세방지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설 경우 연 20조원(감세 10조+탈세10조) 재정보화가 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무상보육(264만명, 5조 4,852억원),기초노령연금확대(8만원→16만원, 1조 8,802억원) 등 어려운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에 대해 270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잘 경청해 주시고 높은 평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NGO 모니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뜻에 따라 서민이 잘사는 사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광을 충북 청주 홍덕 갑 시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吳 濟 世**

'10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 갑 국회의원 구상찬입니다. 금년에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임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 통일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 비공식적 정보 위주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손에 잡히는 데이터, 예산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질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정책의 잘잘못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첫째로 정부가 정책을 법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집행했는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각종 영수증, 법령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부, 통일부는 그 특성상 단기적 이벤트성 정책보다 미래지향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해서도 성심성의껏 제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적한 것들이 외교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외교관 수당 및 해외연수의 효율성 문제,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실태, 인도적 대북 지원문제, 탈북자 지원 및 사후관리 문제 등이었고 해당 부처들로부터 정책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애매모호한 질문과 추측이 아닌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갖고 회의장에 들어갔고, 감사기관들은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한중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저의 애정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동반한 자료집 ‘동북아와 한중관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했고, 그 결과물로서 마련된 정책제안은 외교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저에게 따뜻한 응원을 해주신 지역구민들과 국민 여러분이 있었고, 매일 현장에서 저를 자극해준 동료 감사위원님들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값진 평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具 相 燦

'10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상은 NGO 모니터단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1,000여명의 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과 외교문제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 및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북한의 중국 예측 심화 등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후퇴했습니다. 외교정책 역시 대미편중외교 심화 등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론에 브레이크를 걸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북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특채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굴욕적인 대미편중외교 시정을 위한 외교정책 기조전환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시민 및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기쁨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18대 국회 나머지 기간동안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東 喆

'10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효재 의원



辛卯年에는 올 한해보다 더 열심히 국민들께 다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국회의 가을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가을이고,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국정감사는 정부기관들이 한 해 동안의 일해 온 성과들을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8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정감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세 번째 국감을 치렀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세는 것을 막고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관들의 그릇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듣고 쓰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행잎 셋노랑던 국회의 가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상이라 여겨졌고, 마음과 책임감이 배로 느껴집니다.

올 한해 걱정을 끼쳐드렸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국민의 혈세를 막고 올바른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법씨를 새로 고르듯, 이번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2011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위한 법씨가 되어 줄 것이라 믿으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꿩잡은 정치인으로 기억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희망의 작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직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지만 성숙하여 꽃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손닿는 곳에서 항상 보살피고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에는 올 한해보다 더 열심히 국민들께 다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孝在

'10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



더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출신의 유기준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니 정치인으로서 매우 큰 영광이며 개인적으로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한 제게 더욱 노력하고 용기백배해서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가 당면한 외교 과제 및 통일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거진 외교부 특채파문과 북한의 3대세습,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집중 분석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해외국정감사에서는 재외공관의 현장을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면서 각 공관들이 재외국민들의 권익향상과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을 NGO모니터단이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면을 평가하기 위해 상임위를 모니터하고, 질문내용을 검토해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그토록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단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차기 국정감사를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감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俞 奇 濬

'10국감우수의원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입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3년째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새삼 느끼는 바이지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정책감사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노고가 많으셨던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화를 통한 군납식품의 위생안전 강화를 비롯한 60만 장병의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발생가능성과 그에 따른 탈북난민 수용계획, 북한 비대칭전력 보유현황과 대비태세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등 주변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 실태를 밝혀내고 準영공에 해당하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병역면탈 사건을 분석해 병역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입영연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노력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과분하고 영광된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상식이 있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玉伊

'10국감우수의원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



관심과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

먼저 저를, 2010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심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상을 탔지만, 올해는 국방위원장에서 국방위원으로 자리를 바꾼 첫 해이고, 또 가장 권위있는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이어서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목표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니 뭐니해도 국방은 튼튼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가 계획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 둘째, ‘아무리 그런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구비된 전력들이 노후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노후 전력 적기 대체 및 전력 현대화를 위한 예산 쓰임을 철저하게 검토하자.’ 셋째, ‘국방에도 공정한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은 곧 병역의 공정한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병역 비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자.’

그래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촉구했고, EMP탄에 대한 대비와 방공감시불능지역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헬기, 노후 전투기, 함정 부족에 대한 실례를 들어 전력 대체 및 보강을 주문하였으며, MC몽 병역 기피의혹을 제기,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개선을 통해 조금씩 우리 국방이 나아질 것이라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시 국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 국방위원으로서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각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NGO 모니터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절한 감시와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 국방위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올바른 정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鶴 松

'10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



국민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중랑갑 국회의원 유정현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전통과 공정성으로 명망이 높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엄정한 국정감사 모니터·평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법령을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세 번째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짐하며 모든 힘을 쏟아 붓지만, 막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그런 체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큰 의미를 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정치의 안내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柳 政 鉉

'10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입니다.

어느덧 2010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너무나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0년은 저에게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회 일정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상념들이 지나갑니다.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대립, 시·도 통합으로 인한 사회갈등, 세종시 문제, 그리고 6.2지방선거까지 국가적 중대한 현안들과 갈등은 초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시작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얻은 결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를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아산지역민들이 계셨기에 제 소신을 펼칠 수 있었고,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201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다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공부하고 참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로 뛰는 '현장 국감'을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DDoS대란 1주년, IT강국?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현주소와 과제」, 「국가통합무선통신망사업 재추진현황과 점검」, 「방독면사업 진단보고서」를 비롯,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민선5기 전국자치단체장공식취임 前後 발표 공약내용」 정책백서를 발간하여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정책국감을 실천하였고, 서울 지하철역과 통합창원시,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몸소 파악하며 현장국감을 실천하였습니다. '민생국회', '민의대변', '민심전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였고, 물론 이번 국정감사 동안 이러한 저의 다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다듬고 보완해서 내년 2011년 국정감사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3년 연속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상을 주시는 것을 더욱 발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몸을 숙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된 국정감사기간 동안 전 국정감사장을 함께 돌며 고생하신 모든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아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 이명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明 洙

'10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NGO 모니터링 평가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국회의원 정수성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10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국정감사를 두 번째 치렀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좋은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한 관행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금고계약 은행이나 법인카드 계약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년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공론화하고 시정토록 했습니다. 기관 별로 개별 관리 중인 CCTV들을 지자체별로 통합관리하도록 촉구하고,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산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 화재진압 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영남권 지방국감에서는 경부고속철도(KTX) 완전개통 이후 서울로 구매력을 뺏기는 ‘빨대효과’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감 NGO 모니터단’이 지난 12년간 운영해온 ‘국감우수의원’ 선정제도는 국정감사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정연한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부조리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국감이 자리잡는 데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힘쓰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더 크게 열어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감우수의원 선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NGO 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鄭壽星

'10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을 출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입니다.

2010년 올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주신 것에 대해 국민과 NGO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교육불평등 문제를 큰 주제로 해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입학사정관제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특목고 학생 우대 통로가 되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을 유용하는 점 등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적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모든 국민과 학생에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급별 학생의 장래희망 조사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소득이 높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 아이들의 꿈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뿐 아니라 꿈도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사기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인식 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증가 실태 등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국감 기간 동안 분석·공개했던 자료를 한 곳에 묶은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Ⅱ’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언론과 동료 교과위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더 땀 흘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국민과 NGO모니터단이 ‘주마가편’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0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權 永 吉**

'10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감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 눈높이로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링에 주신 모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지만 국정감사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국정감사가 날로 내실을 더해가고 나아가 국회가 민생을 위한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2010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교과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의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 국감에서는 그간의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 교원평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사교육없는학교 사업예산 및 국립대학 기성회계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사립대학교 BTL 기숙사의 기숙사비 인하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교육현장은 없는지 점검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에 발맞춰, 시·도교육청 및 교육관련 기관의 인사비리 문제를 점검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또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긴 안목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평가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위한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감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의 영광은 저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권영진

'10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뤄가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시작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10월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 모두 국감 시작 전 정책국감·민생국감을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치열한 공방에 그쳤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국감이 본래 취지대로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입법부 대 행정부 구도가 아니라, 여·야 대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와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회의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이 세 번째 맞이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지난 전반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장과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현장 답사 및 관계자 면담, 의견 청취, 설문 조사 등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寸鐵殺人’의 정신으로 정책질의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제, WCU사업 등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검증, 교단 여초현상, 자율형사립고, 학생 및 학교 안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문제, 국립대 법인화, 교복공동구매·등록금카드납부제 등 ‘친서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줄기세포 투자, 나로호 및 KSLV-II,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대책과 쇄빙전문가의 확보, 한의학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가지원,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국산화 대책, 여성연구인력 활용, 정부출연연 연구 성과의 활용, 원전 관련 기술 수출통제 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내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8일과 9일에 걸쳐 국감 후속대책 관련 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 저의 보좌진들과 꾸준한 관심과 비판, 질책, 그리고 성실한 모니터링을 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박 보 환

'10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안형환입니다. ‘201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더욱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을 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저 역시 우수의원상을 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워낙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아서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대변인’이라는 바쁜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변에서 “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 안 나와도 된다”거나 “대변인은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당의 ‘대변인’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사·견제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 큰 보람을 느끼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도 그런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넘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여겨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편 이처럼 큰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서울 금천구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끌기 위해서 묵묵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이 이만큼 앞당겨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국회가 진정한 ‘민의를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활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安 亨 奐**

'10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상 중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이 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이 특별한 이유는 특정단체의 선호도나 단체의 소속감에서 비롯한 수상이 아니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정하여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 위원들이 선정한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2010년 국정감사에 대한 칭찬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으로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남은 2010년도 다가오는 2011년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喆 雨

'10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해숙 의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숙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치신 의원님들이 많았지만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의미 깊은 상을 주신 것은 국민을 위해 소신껏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2010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모토는 ‘현장국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4대강 준설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지반침식 등 심각한 훼손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의 영릉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감준비 기간 중 영릉 주변의 공사현장을 찾아 꼼꼼히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청의 영릉 지표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밝혀낸 것입니다. 또한 비디오(DVD)감상실, 노래연습장, PC방을 하나로 묶어 ‘복합게임유통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성행중인 ‘멀티방’이 샤워실, 침대까지 갖추고 각종 성인물을 비치하여 대여하는 등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위해 보좌진과 팀을 꾸려 여러 곳의 멀티방에 잠입해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파악했고, 업주들을 면담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한 허술한 단속과 관련법의 문제도 밝혀내 문화부의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작정 비판하고, 잘못만을 지적하는 국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국감에서 제시한 4대강 사업 여주보 준설로 인한 영릉의 훼손 위험에 대해서는 국회 문방위 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주보 근처의 신록사의 수몰위험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의성 마애석불좌상의 훼손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바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문화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감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음 지적한 뒤, 복지부의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해 도박중독 치료과정을 연계시킨다면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사감위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현장국감과 대안국감 덕에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 국민들께 깊은 인상을 남겨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全 惠 淑

'10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후 여러 단체나 언론에서 우수 국감 의원을 뽑고 있지만,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권위있고 공정한 상이기에 항상 가슴 졸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NGO모니터단의 활동은 국민의 눈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평가하기에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친서민, 그리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생활국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이나 유선전화요금 인하 정책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산하기관들의 예산 낭비 등을 추궁하여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불용 예산 규모 과대, 임금 체불 문제 등 행정부 전반에 걸쳐 문제도 개선하도록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정쟁에 치중하거나 인신공격, 폭로성 국감이 되기보다는 타협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04년과 2006년~2010년에 걸쳐 6차례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었고 이것이 저의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차례 상을 주신 것은 주마가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폈으니, 이를 통해 제기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韓 善 教**

'10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



정치권보다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0여년, 국민여러분과 눈높이를 함께 하며,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정치권 보다는 국민여러분께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16대 국회 등원 이후 10번째 수상으로, 2000년 이후 11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던 2007년을 제외하곤 매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해와 달랐습니다.

그동안 주로 활동해 오던 기획재정, 정보통신 분야에서 벗어나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치르는 첫 국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쌀의 재고 과잉,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로 농식품위를 자원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의 다양한 농정 전문가와 30여 차례 가 넘는 토론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현장, 수차례에 걸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정부양곡 보관상태 현장점검, 농어촌기반시설 현장점검, 마사회 장외경마장 현장 방문, 산림유통센터 방문, 임업인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주의적 경쟁지상주의, 기업농중심의 농정철학으로 일관하고 있는 MB 농정의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10년·20년을 내다본 7대 농정과제’와 ‘쌀 값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잘했다는 칭찬이기에 앞서 중환자상태에 있는 한국 농정이 새롭게 일어서는데 계속해서 앞장서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활동과 평가는 ‘정치권보다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케 하는 채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격려와 채찍을 바로 새겨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孝錫

'10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김학용 의원



대한민국 일등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이자,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0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김대인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일 동안의 국감 내내 국감 현장을 지키고 꼼꼼히 평가해주신 현장 모니터 요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12년 전통의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 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각별합니다.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맞은 이번 국감에서 저는 국감 목표를 ‘생활국감’과 ‘현장국감’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상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감에서 성실 국감을 실천한 점이 뿌듯합니다. 올해 국감 기간 동안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동료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질의도 준비해야 하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으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안성 시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의 영광을 안성 시민께 바칩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學容

'10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씬씀이를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 이렇게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현장국감을 하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농업과 농민의 미래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로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현장국감을 다니느라 지역 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홍천·횡성 작은 마을의 주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횡성 한우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제주도에서 마사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 중 하나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조금이나마 마음 빛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성·홍천 주민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상입니다.

농촌출신국회의원으로서 농민과 농촌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주신 분들과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칭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공무원,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현장국감장에서 어김없이 함께 하시며 평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국감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黃 永 哲**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진일보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이기에, 의정활동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상인 줄 알기에 기쁘게 여기며 무한한 신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다른 여타의 평가기관이 아닌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회의원들을 밀착 모니터링해서 주신 상이라 제겐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따르며 함께 해 온 보좌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7대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전 건설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이번 지식경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 상임위원회에서 네 번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저는 2년마다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 전공분야가 아니기에 더욱 해당상임위의 업무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정부기관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저의 노력은 이번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단 한 차례의 국감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각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도 차근차근 나름 최선을 다해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기관별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을 정해,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부지런히 한 권씩 내다보니, 무려 자료집만 총 19권을 내기도 했습니다. 매번 자료집을 내다보니 동료위원들로부터 부러움 섞인 원망을 듣기도 했지만, 차곡차곡 쌓인 자료집을 보니 '역시 남는 건 자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감사와 정책대안 제시에 더욱 주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지역의 전통상가 상인들이 '대형마트 자체상품(PB상품)인 '미끼상품'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 하소연을 듣고 직접 대형마트 매장에서 물건들을 구매해, 비교 분석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한 현장밀착형 감사였습니다.

대형마트 PB상품 관련한 현황분석은 이를 구매하고 분석하기 위해 보좌진 전체가 밤을 지새우며 협력해서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대형마트 상품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향후 추후 진행과정도 점검해보기로 해 더욱 애착이 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여야가 정쟁하는 구도가 아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균형 있는 국정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나라 전체 산업의 큰 밑그림을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에,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국감우수의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在 庚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의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폭로나 일회성 문제제기는 지양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 문제제기와 함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원칙 하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제, SSM 급증 속에 신음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KIKO 피해기업들 지원, 국가 R&D 시스템의 체계적 개선, 에너지 빈곤층 복지 대책 등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이런 노력을 전국의 270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평가해줬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振 杓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치열히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법사위를 떠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준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감사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감사는 국민과 정부부처가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책임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상임위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정감사를 받는 산하기관에 일방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땅의 힘없는 골목 상인과 내 이웃과 같은 시장 상인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단발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기간 중에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발을 딛고 있어도 늘 미래를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치열히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에서 주시는 상을 국민들이 더 잘 하라고 주시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국정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수상 소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朴 敏 植**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감 첫해는 열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면 둘째 해는 경험과 전문성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노력들이 인정받아 국감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고, 여러 언론에서도 올해의 국감인물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국감을 준비하는 마음은 더 어렵고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위원회의 세 번째 국감은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이디어 고갈 등으로 부실하게 준비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우수 국감의원 수상은 자만심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걱정 덕에 더 열심히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010년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했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몇 가지 성과를 본다면, 첫째, 가스공사가 344%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자금 300억 원을 직원들의 주택자금으로 저리 융자해준 사실을 적발하는 등 공기업의 부실 방만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우리나라에 매년 40만 건에 가까운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으나 09년 기준, 기업의 경우 40.7%, 대학, 공공연은 70.7%가 휴면상태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개발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셋째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SSM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벌점 누적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제도와 같은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넷째, 지식경제부 R&D 자금의 325억 횡령 사실을 밝혀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명분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CNG 버스가 26개월간 748대나 운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힘들게 준비했던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는 한 시간만 더, 하룻밤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고, 공정한 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지금도 열정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함께 고생을 자처해준 직원들과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NGO단체 및 언론, 그리고 유관기관과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고생한 정부와 관계기관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에서 2008, 2009년에 이어 세번째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아마도 더욱 열심히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짐하며 더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鍾 赫**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북갑 출신 국회의원 정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알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자평하자면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던 국정감사” 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막말과 고성이가 오가던 국정감사가 아닌 충실한 자료 준비를 기반으로 한 차분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수개월 전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국정감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주제로 10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테마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하고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리 나아진바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회복세이나 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민, 빈곤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KIKO 피해를 입은 우량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부 지원 촉구, 현 SSM 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조속한 법 통과 주장, 중소벤처기업의 문턱을 낮추는 공정한 R&D 기회 제공, 중소기업기술탈취 방지 및 납품가협상제 입법 발의,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채널 도입 및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주장,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발의, 에너지복지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 했던 사항들을 상임위 예산안에 반영하여 우량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R&D 선진화 예산,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 예산, 노인복지시설 에너지저소비제품 보급, 재래시장 지원, 1인창조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한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鄭 泰 根

'10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최연희 의원



현장 중심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년의 전통 속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회의정활동의 책임과 성과를 강조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권위 있고 뜻 깊은 우수의원의 명예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수상이 됩니다만, 4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의 중요한 성과를 돌이켜 볼 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야말로 의정활동의 긴장과 책임감을 더해주고, 그 결과로써 주어지는 큰 명예야말로 가장 뿌듯한 자부심의 근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큰 자부심에 걸맞는 책임과 성실함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늘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전해주시고 마우신 분들과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崔 鉛 熙**

'10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



정부정책과 추진사업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명순입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출발하자,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자 생각했습니다.

둘째, 발로 뛰는 국감을 하자, 정부의 각종 서민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생활현장에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자 다짐했습니다.

셋째, 폭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자,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심도깊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넷째, 정책경쟁을 하자, 정부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여야가 서로 비난하기 보다는 좋은 정책 경쟁을 지향해 나가자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섯째, 상시국감을 준비하자, 작년국감 이후 저는 이행수준, 지표개선정도, 정책반영도, 제도화 등 4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평가결과를 국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상시국감시스템이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보좌진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추진되는지 그 실행 여부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점검하면서 정부정책이 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서민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돌아보니 치밀한 계획과 후속조치가 없어서 아직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서민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위로 전하는 신문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비판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돌아보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렇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체계는 늘 그랬듯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정부와 피감기관들 쪽에서 시정이 되었는지, 법과 제도, 예산과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더 충실히 국정감사에서 평가해서 정부정책과 추진사업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姜 命 順

'10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입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의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현장까지 찾아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이 국정감사의 발전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리 한번 비우지 않고 성실히 모니터링에 몰두하는 모니터위원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더욱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나 노인일자리 등 각종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해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 문제나,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정부의 허점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이 제대로 개선되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비가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孫 淑 美**

'10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



나라의 정책 주치의로서 항상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2일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시니 송구스러운 따름입니다.

저는 이번 2010년 국정감사에 앞서 7가지 틀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 차별적 요소와 불공정 부정사례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고, 둘째는 혈세 낭비사례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국민 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업무관리능력·청렴도, 근무태도 등을 중점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는 통일 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남·북간 건강격차 해소, 인도적 지원 강화, 통일비용 적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곱째,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부정부패 등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사회는 결국 그 병이 깊고, 넓어져 모두가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가 다수의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단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와 국가의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 국감장에서는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해 지적한 사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져 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정책 주치의로서 항상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尹 碩 鎔**

'10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



국민여러분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건강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권위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상인 국감우수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관심으로국감 현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활동을 평가하신 모니터 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국회의원 전현희’를 있게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고생해온 의원실의 보좌진들과도 수상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서민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건강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집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全 賢 姬**

'10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원 정하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다짐처럼,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선정적인 자료발표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의 주류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장애인운동을 해왔고, 국회의원인 된 후로도 정책분야의 많은 부분 개선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잘못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상까지 받아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년의 국정감사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귀 단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鄭 河 均

'10국감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



남겨진 과제와 고민들은 내년 국정감사 전까지 풀어야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20여일의 국정감사기간동안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은 물론 전국 곳곳의 지방 국정감사 현장까지 꼼꼼하게 현장을 모니터링해주신 모니터요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12년간 한결같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해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치적 현안질의보다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및 노동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 및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시간에 쫓겨 깊어야 할 문제를 못짚고 넘어가기도 하였으며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도 시원스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적도 있어, 부족한 국회의 국감 인력과 짧은 국감기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남겨진 과제와 고민들은 내년 국정감사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NGO모니터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 상을 충실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曹 海 珍

'10국감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입니다.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감NGO 모니터단이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국정감사제도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문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실업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문제, 석면, 아토피, 음식물쓰레기 등 건강과 밀접한 주제들도 깊게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중 하나였던 4대강 지역에서 의도적 습지 훼손면적 축소 및 낙동강 지역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문제 등 사업 위법성과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노동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국민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라는 의미라 이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환경정책, 일자리?노동 정책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올바른 정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상임위의 국감 일정에 참석해,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주신 NGO 모니터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洪 永 杓**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365일 국감을 치르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위원 상을 7년 연속하여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동안의 국정감사기간동안 함께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여일 정도의 짧은 감사기간, 방대한 조직의 피감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뒤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지지부진한 정책에는 꼼꼼하게 잘못을 따져 건강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공기업을 만들어나자는 목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국민여러분을 대신하여 야당보다 더 날카로운 잣대로 임했습니다. 특히 국제 항공운임을 검토하는 국토해양부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공운임 심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불공정한 운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KTX 열차 지연과 관련된 외국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항공사 승무원과 KTX 승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기관내 여성의 직장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내 항만분야 및 지자체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업계의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접근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로 끝이 아니라 법 개정과 정부정책 조율 등을 통해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동차 안전도평가결과 라벨 부착과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달 남짓한 국정감사 기간에만 ‘반짝’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국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365일 국감을 치르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NGO모니터단이 주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신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 起 炫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국토해양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2년 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수행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6월부터 국토해양위원회의 모든 산하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공부하면서 4개월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사업과 LH공사부채문제 등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업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인 만큼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내신 혈세가 국가운영에 어떻게 하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6월부터 시작된 노력이 국정감사 전 언론보도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정책 추진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의 재발방지와 재검토 약속 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답변을 하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모니터해주고 지적해주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이 저의 미약한 노력에 대해 격려와 신뢰의 의미로 주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과 긍지로 다가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항상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 당선 당시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金熙喆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20일동안의 벅찬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꼼꼼한 평가를 위해 애쓰시던 모니터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8대 국회에 첫발을 내딛고 3번째 국정감사였는데,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같이 국정감사를 치른 동료의원들과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명 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때때로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객관적 자료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국정감사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LH공사의 부채문제, 보금자리사업, KTX문제, 수자원공사 등 산적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국회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국토해양부 및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자료제출을 위해 몇날밤을 지새우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몇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피감기관의 성실한 답변도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참여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국정감사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의 수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白 在 鉉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



시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마산을 출신의 국회의원 안홍준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회 전체 상임위 활동과 감사현장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국정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숭고한 노력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NGO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저를 작년에 이어 201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셨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보건복지 양극화 현상과, 저출산문제, 선택진료제도 등에 관한 국정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NGO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덕분에 2009년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국토해양위로 소속 위원회가 바뀌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며 줄곧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생명’과 ‘환경’의 문제를 국토해양위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써 국정감사 기간동안 4대강 수질 문제와 문화재 보존 문제를 우려한 점을 비롯하여, 김포 공항 및 철도 소음문제, 지하상가내 공기질 문제, 고속도로 천연보호동물 로드킬 문제 등 친환경에 대한 지적에서 저의 철학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산남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단독 방문해 사업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생태공원조례 제정과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을 요구하였고, 동아시아 생태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한국 양서류 생태문화 콤플렉스’ 조성을 제안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밖에 국내외차량을 대상으로 신차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국토해양부 태도에 대한 질책에 나섰고, 급증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해 오염된 바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국내 최초로 단독 입수해 해양오염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저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10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격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열심히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安 鴻 俊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전여옥 의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여옥입니다.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전반기 국정에 대한 종합평가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숲과 나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현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현실과 미래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취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점도 크게 인정해주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상에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하라는 채찍이자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0년 국정감사 기간동안 함께 한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의 도움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밤을 지새우고 고생한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田 麗 玉

'10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귀한 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의 대표자로 제 몫을 조금이라도 해낸 듯해 뿌듯합니다.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진실로 알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소속 위원회의 현안과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저로 하여금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깨닫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으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에 보답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鄭 熙 秀

'10국감우수의원

여성가족 /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



소외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입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 저의 자리 바로 뒤편에도 계셨었는데 너무 열심히들 하셨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느끼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상은 국민을 위해 더욱 애써라는 격려로서 받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이애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간호사로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어 왔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빈곤층이나 새터민, 한센병 등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치매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 정말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는 국민들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여성이 보다 평등한 사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청소년이 바르게 커갈 수 있는 환경 등을 만들어, 보다 화목하고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과 사회 문화 창조를 위해서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상임공동단장이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총재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국정에 이바지 하는 이애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 愛 珠